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INDIANA UNIVERSITY

2025 세계 기부 환경 지수 한국 보고서

전문가1: 김성주 2 장윤주 3

인디애나 대학교 릴리 패밀리 필란트로피 스쿨 편집

개요

필란트로피 조직의 법적 형태: 연합체, 협동조합, 기업, 사회단체

필란트로피 조직이 다루는 5가지 주요 이슈: 사회복지, 보건 및 의료, 교육, 해외구호, 청소년과 가족

조직 설립 평균 소요시간 : 0-30일

조직 설립을 위한 평균 비용 : 0원. 다만,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등기 비용이 필요한데, 10만 원~40만 원 수준으로 지역에 따라 상이함

관할 부처: 중앙/지방정부

기부 환경 점수

연도	운영 용이성	세금 혜택	해외 기부	정치 환경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평균 점수
2025 GPEI	4.47	4.1	4.25	3.0	3.0	4.3	3.85
2022 GPEI	4.5	4.1	4.3	3.9	3.0	4.0	3.94
2018 GPEI	4.67	4.40	4.20	4.10	N/A	4.50	4.37

출처: 인디애나 대학교 릴리 패밀리 필란트로피 스쿨, 2025 세계 기부 환경 지수

- 필란트로피는 ‘공익을 위한 자발적 활동’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맥락에 따라 원문 그대로인 필란트로피, 또는 PO, 비영리조직, 자선단체 등으로 번역하였음.

1 2025 GPEI 보고서의 저자들이 2022 GPEI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된 설명과 점수를 제공

2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3 아름다운재단

주요 발견

I. 자선 단체(PO)의 설립/등록, 운영, 해산

이 섹션의 세 가지 지표 질문은 자선단체를 관리하는 법률과 규정에 관한 것이다. 이 범주의 채점 질문은 규정의 세 가지 측면을 다룬다: (A) 설립 및 등록, (B) 운영, (C) 해산.

질문 1: 개인이 조직을 설립하기에 어느 정도 자유로운가?

점수: 4.6

한국에서 PO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된 PO는 정부로부터 지원(예: 정부 보조금이나 민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법인이 기부자들에게 자선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21년 개정법에 따라 정부는 세액공제 혜택을 기준으로 공익법인과 공익단체(구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공익법인은 개인과 기업 모두, 공익단체는 개인 기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제공할 수 있다. 공익 비영리단체의 경우 이사진의 절반 이상이 한국 시민이어야 한다. PO를 등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비영리 조직을 설립할 때, 협회나 재단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이 있다. 협회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200만원~500만원, 재단의 경우 5,0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 설립 시,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최소 자산 기준이 상이하다.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또는 영리 단체로 설립 후 인증을 받는 요건이 필요하다. 영리 조직이라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질문 2: PO는 어느 정도 정부 관여 없이 운영이 가능한가?

점수: 4.0

법에는 이사회, 총회, 내규, 감사 등 기본적인 제도적 요건이 있지만 PO는 조직의 내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과 자유가 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 채널과의 상호작용 및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 능력에도 제약이나 제한이 없다. 다만 행정 및 모금 활동에 다소 제약이 있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내정자 중에서 이사회의 4분의 1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회원 및 주체를 위해 확인된 이해관계자가 아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금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면 총지출의 80% 이상을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질문 3: PO가 해산하는 데 정부는 어느 정도 재량이 있나?

점수: 4.8

PO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다. '사단법인'은 이사회 구성원의 3/4이 해산을 요청한 후 자발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재단법인'은 PO가 해산을 결정하면 모든 채무가 상환된 후 남은 자산은 해당 조직의 요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결정한 PO에 해당 금액을 이양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 오남용, 비윤리적 행위, 기타 위반을 이유로 PO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정부가 비자발적 해산 명령하더라도 PO는 법원에 해산 명령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38는 "법인이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해로운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당국은 PO의 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I. 세제 및 재정

이 섹션의 두 가지 질문은 국내 기부와 수령에 따른 재정적 제한을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과 관련이 있다.

질문 4: 기부를 하는데 세제 혜택은 어느 정도 우호적인가?

점수: 4.0

개인과 기업 기부자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법적 PO에 대한 자선기부 기록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열람할 수 있어 세제혜택을 받는 절차도 명확하고 일관적이며 간편하다. 다만 자선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다소 제한적이다. 개인의 경우, 세제 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개인 기부자는 전체 소득의 30%까지 자선 기부를 할 때 전액 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 10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 고용, 기부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 기부에 대한 세금 혜택을 계산하는 공식은 복잡하다. 기업 기부의 경우, 영업이익의 총액과 기부 단체 유형에 따라 세제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기업은 기부처에 따라 총 영업이익의 10%, 또는 50%까지 자선기부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선 기부에 대한 이러한 규제와 제한은 한국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선 기부를 다소 제한한다.

질문 5: PO가 기부를 받기에 세제 혜택은 어느 정도 우호적인가?

점수: 4.2

비과세 지위를 받는 과정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PO는 재산세 비과세, 법인세 비과세, 소득세 비과세, 부가가치세 비과세 등의 형태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PO가 목적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202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정 이후 법적, 정책적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개인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코로나19 기간(2020년 1월~2023년 3월) 동안 일시적으로 총소득의 30%에서 100%로 상향되었다.

III. 해외 기부

이 섹션의 두 가지 질문은 해외 기부금 송금과 수령의 재정적 제약을 관리하는 법률과 규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기부자와 수령 기관과 관련있다.

질문 6: 해외로 기부금을 보내는데 얼마나 우호적인 환경인가?

점수: 4.0

송금 수수료를 제외하고 국경을 넘는 자선 현금 및/또는 현물 기부금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나 세금이 없다.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즉시 세무당국에 거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즉시 돈의 출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테러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것, 특히 북한이나 몇몇 선택된 국가들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을 제외하고 국경을 넘는 자선 기부금을 보내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개인이나 기업은 해외 기부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지정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단체로 해외 기부 지원 대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 기부자나 법인은 국세청에 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PO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단체에 총 100억원 이상을 증여하면 개인이나 법인은 외환거래법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

질문 7: 해외에서 기부금을 수령하는데 얼마나 우호적인 환경인가?

점수: 4.5

해외에서 현금 및/또는 현물 기부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 세금 또는 승인 절차가 없다(관세법 제91조). 테러 등의 활동과 연계된 것, 북한 등 제재 대상국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 외에 해외에서 자선기금을 받는 데 제약이 없다.

IV. 정치 환경

다음 세 섹션의 네 가지 지표 질문은 자선활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맥락, 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한 것이다.

질문 8: 정치 환경은 필란트로피에 어느 정도 우호적인가?

점수: 3.0

정부는 PO와의 관계에서 우호적이지 않다. 지원을 축소하되 규제를 강화했다.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원이 엄격해졌다. 2023년 정부는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예산 개요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3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74억6300만원이 편성된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 대폭 줄어든 금액이다.

질문 9: 공공 정책 환경은 필란트로피에 어느 정도 우호적인가?

점수: 3.0

2023년부터 한국의 자선활동에 대한 공공 정책과 실질적 환경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이전 정부에서 구성되어 총리실 산하에서 운영되던 시민사회위원회가 현 정부 출범 직후 폐지되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이 축소되었다. 자선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라는 명목 하에 자선단체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사회적경제 부문 예산이 삭감되고 여러 부서가 폐지되거나 통합되었다.

V. 경제 환경

질문 10: 경제 환경이 필란트로피에 어느 정도 우호적인가?

점수: 3.0

2019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된 이후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졌고, 한국의 비영리 부문은 치명적인 재정 및 서비스 제공 문제에 직면했다. 재정적 어려움은 규모있는 자선단체보다 소규모나 풀뿌리 조직에 더 심각했다. 많은 자원을 보유한 대규모 조직이 소규모 자선단체보다 자선 기부를 성공적으로 더 많이 모금했다. 기부자들은 풀뿌리 조직보다는 잘 알려진 기관이나 주요 자선단체에 기부할 가능성이 높다.

VI. 사회문화적 환경

질문 11: 사회문화적 환경이 필란트로피에 어느 정도 우호적인가?

점수: 4.3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에 기업 기부는 감소했으나 개인기부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국은 재난시기에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하는 강한 협력과 나눔 정신이 있다. 특히 MZ 세대들은 크라우드펀딩, 자발적 사회참여 활동 등 새로운 기부방식에 적극 참여하고 기부금액과 참여율도 증가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지진에는 가상화폐 기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코로나와 재난 시기에 블록체인, 메타버스, 가상화폐, NFT와 같은 Web3.0 기술을 도입하고 시도하였다. 소셜 섹터에서는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과 임팩트 투자가 확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자선 문화는 2020년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확장되며 성숙해졌다.

VII. 기부 환경을 위한 권장 사항

이 질문들은 이 국가의 자선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제공하고 자선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데 사용된다.

기부 환경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주요 권장 사항

- 정치적 선호와 관계없이 정부와 비영리 부문 간의 일관된 정부 정책과 파트너십 구축
- 자선단체의 수익원 다각화
- 정부 규제의 중복 제거 및 자선단체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간소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비영리 부문 및 기부 문화에서 지속되는 혁신과 영향

- 자선활동/NGO 부문과 정부 간 협력 증대
- 온라인/디지털 기부
- 더 유연한 세제 혜택
-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비영리 부문과 기부 문화에 있어 중요한 이슈나 트렌드로 부상하는 것들

- 블록체인 도입
- 기후 변화/환경 보존
- 미디어 저널리즘의 역할

참고 문헌

아름다운재단 (2022). 기빙코리아 2022 – 개인기부자 조사(일반국민).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1820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https://blog.naver.com/nanum-research>

가이드스타코리아 (2024년 5월). NPO가이드스타, 46호.

<https://www.guidestar.or.kr/web/publication/all>

김성주 (2022). 2022 세계 기부 환경 지수 대한민국. 인디애나 대학교 릴리 패밀리 스쿨.

<https://scholarworks.indianapolis.iu.edu/server/api/core/bitstreams/a0a9f139-43bd-4e6f-8f5f-46d04db1ad44/content>

박미희, 노연희, 이수현, 윤지현, 한우재, 이민영, & 윤재윤 (2024). 2024 기부 트렌드 - 주도하는 기부자, 반응하는 모금조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https://blog.naver.com/nanum-research/22336678267>